

LANGUAGE
STUDY ABROAD
GUIDEBOOK

영국 어학연수 가이드북



유학연수에 진심을 더하다!
안심 위에 진심, 유학네트

CONTENTS

SPECIAL

INTRO

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SPECIAL EDITION 1

워킹홀리데이, 준비됐나요? 떠나기 전에 고려해봐야 할 것들

SPECIAL EDITION 2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 '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UNITED KINGDOM

FOCUS

국가소개 영국 UNITED KINGDOM

도시소개 영국 주요 도시 소개

ZOOM IN

유학칼럼 영국에서 영어를 배워야하는 진짜 이유는?

SELECTION

시험준비과정 CAMBRIDGE & IELTS 필승 전략

영어플러스과정 KINGS EDUCATION 영어플러스 과정

중소도시 연수 영국 중소도시 실속 어학연수

영어학교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INFO

유용한 정보 그 단어, 도대체 무슨 뜻이니?

LIVE REPORT

영국,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ELS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실현시켜 보세요.

나만의 해외 연수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영어를 배우러 전 세계 50여 개 ELS 센터로 떠나 보세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성공입니다.

ELS는 학생 개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완벽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LS는 최대 규모의 대학 캠퍼스 기반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ELS 강사진은 영어 교육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LS의 교재와 자료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영어 교육 분야의 최고 저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ELS의 Intensive English 프로그램은 전 세계 650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ELS를 졸업하기 전에도 제휴 대학교에 조건부 입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S 센터가 위치한 제휴 대학교에서 수업 참관 또는 청강의 기회가 있습니다.

STUDY ENGLISH. EXPLORE. SUCCEED.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LS.edu • UniversitySearch.org



세계를 향한 꿈

유학네트가 함께 열어갑니다

당신의 꿈이 그저 꿈꾸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20년 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꿈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이 언제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유학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유학 네트워크,

유학네트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껏 꿈꾸셔도 좋습니다.





GO FURTHER WITH ENGLISH

믿을 수 있는 교육기업, 카플란

카플란은 1938년 창립자인 스탠리 카플란(Stanley Kaplan)이 뉴욕 브루클린 부모님댁 지하에 차린 작은 교습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성공적인 사례가 거듭됨에 따라 시험준비를 넘어 고등 교육, 영어 교육까지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를 창간한 그레이엄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Kaplan, Inc.은 전 세계 굴지의 교육 사업 및 어학 과정을 자랑하는 세계 1위의 교육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카플란은 전 세계 백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 및 커리어, 개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카플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모든 결과는 노력의 결과'라는 스탠리 카플란의 창립 정신을 따릅니다.

왜 카플란을 선택해야 할까요?

- 영어권 6개 국가에 위치한 37개 센터
- 전세계 150개국 학생들의 97% 추천율
- 세계 유수의 대학 및 상위 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 국제 학생의 언어 교육에 탁월한 명성을 지닌 K+ 커리큘럼
- TOEFL®, IELTS, CAMBRIDGE 시험 준비과정, GMAT® 및 GRE® 시험 준비과정 제공
- 주니어 글로벌 캠프, 25세 이상 특화 센터, 40세 이상 특화 과정 등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정 제공
- 1:1 과정, 1주 초단기 영어 연수 등 단기 문화 체험 과정 제공
-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 학생 기숙사부터 현지 가정과 생활하는 홈스테이까지, 전문 직원들이 관리하는 프리미엄 숙소

카플란의 4주 무료 재수강 제도, 영어 실력 보장 정책

영어 실력 보장 정책이란 집중영어 과정(10주 이상) 또는 집중 학기제 과정(5,6,8개월)을 등록한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당일 측정된 최종 도달 예상 레벨에 과정 종료 시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구하는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학생들에 한해 추가 무료 4주 학업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에서 제공되며, 자세한 적용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플란의 독자적인 K+ 학습 시스템

K+ 학습 시스템은 카플란의 교육 전문가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발한 카플란만의 독자적인 통합 영어 학습 시스템입니다. K+의 다양한 교육 자료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분야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을 돕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며, 과정을 마친 후에도 K+ Online과 K+ Online Extra를 통해 영어 실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K+ COURSE BOOKS

깊이있는 영어 학습과 더불어 전반적인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이 가능한 카플란 자체 개발 수업 교재

K+ LEARNING CLUBS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하고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회화 스터디 그룹

K+ ONLINE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선생님 피드백을 전달받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K+ ONLINE EXTRA

문법, 발음, 어휘 영역의 더욱 빠른 실력 향상을 이끄는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자료

카플란의 프리미엄 과정 소개

미국 GMAT®/GRE® 시험 준비과정

카플란은 미국 내 GMAT®/GRE® 시험 준비과정을 제공하는 유일한 어학교로 독자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며 전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높은 퀄리티의 수업을 자랑합니다. GMAT® 시험 준비 과정의 경우, 실전 모의 시험을 제공하여 더욱 체계적인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영어과정

영어공부와 문화체험 및 휴양을 결합한 영어연수 과정으로 영국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지닌 고풍스런 도시 바스, 영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토키, 비틀즈와 축구의 도시 리버풀 중 선택 가능합니다. 40세 이상의 중장년들을 위한 과정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수업을 받으며 연수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대일 과정

학생이 원하는 어학연수 목적과 실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 및 관심 주제 등을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목표에 따른 맞춤 수업으로 설계됩니다. 단기간에 실력 향상이 필요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및 개별적으로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지난 1992년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의 길을 걸어온 유학네트는 고객이 유학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고객의 유학 라이프와 함께하는 든든한 유학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27년간 유학 사고율 0%를 달성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뤘다. 특히 지난 해에는 국내 약 3,300여 명, 해외 부문까지 합하면 무려 1만 7,00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유학네트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1등하는 회사의 유학 컨설팅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는 나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선택을 했느냐다. 많은 이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학수속률 1위를 자랑하는 유학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바로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유학 컨설팅 능력이다.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국내 유일의 ‘민간 유학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은 100여 명의 유학네트 유학플래너들은 수만 명의 수속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유학 플랜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14개, 해외 7개 등 국내외 총 21개의 고객상담센터와 전 세계 약 1,500여 개의 초중고, 전문대, 대학(원), 영어학교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를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완벽한 케어, 똑똑한 서비스로 ‘스마트 안심유학’ 실현

유학네트는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상담에서부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학네트는 고객이 편안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 신청부터 비자 접수, 항공 예약,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공항 마중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속 및 출국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첩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또 출국 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도착 후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비보장 제도’를 통해 고객의 수속비와 학비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해외 관리 서비스

유학회사의 역할이 고객을 해외 학교와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유학네트는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업부터 현지 유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유학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담당 유학 플래너가 출국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면 출국 이후의 현지 생활은 해외 ACS (After Care Service) 센터의 현지 담당자가 이어받게 된다.

해외 ACS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 센터가 서로 연계해 고객을 지원하는 유학네트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족까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현지 관리 서비스로, 고객 입국 첫날 해외 ACS 담당자는 공항부터 숙소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후 국내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무사 도착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이후 입국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객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다. 또 학업이나 비자 연장 등의 추가 계획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귀국 일정을 체크해 안전한 귀국을 돕는다. 이와는 별개로 유학네트는 유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국내외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워킹홀리데이, 준비됐나요?

떠나기 전에 고려해봐야 할 것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체결국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이다. 청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소중한 기회이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가 풍성해야 자신에게 꼭 맞는 워킹홀리데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의 철저한 준비로 시작되는 법.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을 짚어봤다.



워킹홀리데이, 나의 선택지는?

‘워킹홀리데이’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로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이 있다. 많은 워홀러들이 선택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선택지’로 볼 필요는 없다. 찬찬히 살펴보면 꽤 많은 워킹홀리데이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는 국가는 워킹홀리데이 체결국 20개국과 청년교류제도 체결국 1국으로 총 21개국이다. 워킹홀리데이 체결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칠레이고 청년교류제도 체결국은 영국이다.

평균 1년 정도 체류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은 무엇이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또 기후, 국민성, 물가, 치안, 자연환경, 인접국, 관광 요소, 교육의 질 등 나라별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워킹홀리데이 나라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워킹홀리데이에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 쓸까?

워킹홀리데이는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의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각각 1~2년, 3개월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국은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는 워킹홀리데이 허용 국가 중 유일하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별로 워킹홀리데이 최대 체류 기간이 다르므로 기간 확인은 중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나라의 최대 체류 기간을 확인한 후, 얼마만큼의 시간을 워킹홀리데이에 쓸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의 시간을 워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1년 중 관광, 취업, 어학연수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지 생각해야 한다. 외국에 1년 머문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저절로 붙는 것은 아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1년간 의미 없는 잡무만 하고 돌아와서 워홀에 실패하는 워홀러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도전할 때, 영어 실력과 특별한 경험, 여행의 즐거움을 모두 맛볼 수 있다.

또한 나라마다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서는 몇 개월까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워홀 기간 1년 동안 자유롭게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4개월, 6개월 등 어학연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어학연수 허용 기간을 확인하여 자신은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워킹홀리데이도 플랜 B가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나라마다 모집인원도 다르고 지원 시기도 다르다. 어떤 나라는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는 대신 지원 시기가 매년 불특정한 경우가 있고, 어떤 나라는 지원 시기는 연중 수시로 자유롭지만 모집인원이 매우 적은 경우가 있다. 나라마다 신청 방법도 제각각이고 신청할 때 필요한 지원 서류도 다르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불합격 요소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할 때, 가장 가고 싶은 나라에 지원하면서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유사한 환경의 나라를 2지망으로 생각하는 등 플랜 B를 세워두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직접 부딪혀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귀중한 경험이 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의 유급 인턴십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노린다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다. 유학네트 등 믿을 수 있는 유학회사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영어 실력과 일자리, 경력 등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어학연수, 대도시 vs 중소도시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이 다른 것처럼 해외의 다른 나라도 도시에 따라 그 규모와 분위기,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 마련. 대도시에서의 어학연수와 중소도시에서의 어학연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대도시 vs 중소도시, 내게 꼭 맞는 어학연수 도시는 어떻게 찾을까?

1. 나의 성향 파악하기

대도시

사람들이 많고 북적이는 곳을 좋아한다.
바쁘고 활기찬 생활을 즐긴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

중소도시

사람들이 적고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전원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원한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싶다.



2. 나의 연수 목적 파악하기

대도시

취업에 대비한 비즈니스 영어 등을 배우고 싶다
영어시험 준비과정 등 다양한 전문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인턴십을 통한 현지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환경에서 국제도시의 글로벌한 분위기를 체험하고 싶다.

중소 도시

현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학연수 영어학교의 세심한 관리를 받기 원한다.
영어 공부에만 집중해서 영어 실력을 확실히 향상하고 싶다.
한국인이 적은 환경을 원한다.

3. 키워드로 장점 파악하기

대도시

#다양한 볼거리
#편리함
#교통의 요지
#편의시설 곳곳!

중소도시

#저렴한 비용
#착한 물가
#현지에 동화되기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 ‘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국제학생증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신분 증명만으로도 호텔 예약, 항공권 구입,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학생증은 ISEC, ISIC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꼭 학생이 아니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유스증과 교직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교직원증도 있다. 국제학생증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국제학생증 ISEC과 ISIC의 차이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세계에서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숙박, 교통, 공공시설 방문 등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동일하지만 발급 기관에 차이가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국제학생교류센터에서 발급되며 국제학생증 ISIC는 한국국제학생교류회에서 발급된다.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Identity CARD)는 195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서비스 프로그램이었다가 1987년 공식적인 법인이 설립되면서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학생증이다.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는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 ISEC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EC가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학생증인 만큼 ISEC는 미국에서 쓰기 좋고, ISIC는 유럽에서 쓰기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행 전문가들은 ISEC와 ISIC 모두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생증인만큼 혜택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ISEC의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나라별, 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다. ISIC의 혜택 역시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항목별로 확인 가능하다.

[국제학생교류센터](#)

[한국국제학생교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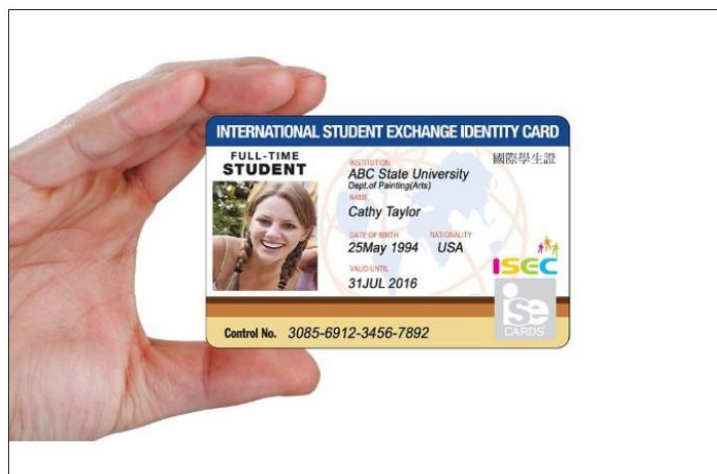
국제학생증 ISEC과 ISIC,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

국제학생증 ISEC는 학생에 대한 기준이 섬세하다.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나누어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 풀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등록한 연수생 등을 포함한다.

파트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기간제 학교, 평생 교육원, 학점 은행제,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생 등을 말한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은 무의미하며, 더 많은 형태의 학생에게 국제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ISIC는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은 없지만 주 15시간의 수업을 듣는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된 풀타임 학생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플라스틱 카드 외에 스마트 폰 속 모바일 카드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국제학생증 ISIC는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 부산은행 등 국내의 다양한 은행 및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체크카드 기능을 겸한 국제학생증 발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생증 ISEC는 체크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려면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국제학생증 vs 국제유스증,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할까?

국제학생증은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이고 국제유스증은 ‘젊은이’임을 증명하는 카드이다. 어떤 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기 사용 목적이 다르고 나라별 혜택도 달라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순 할인 혜택을 비교하면 국제학생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신 국제유스증은 이미 졸업했거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제유스증 소지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학생 혜택에 제한을 두고, 나이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SEC의 국제유스증 (IYEC)은 12세 이상 만 26세 미만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ISIC의 국제 청소년증(IYTC)은 만 30세 이하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전국 방방곳곳 어디에나 유학네트가 있다

유학네트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14개의 국내 상담센터를 운영, 고객이 전국 어디에서나 유학네트의 스마트 안심유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유학 컨설팅, 스마트 안심서비스, 현지 밀착 서비스로 안심유학이 실현되는 곳, 스마트 안심유학 전문기업 유학네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세요!

전국 어디서나 1588-1377 (대표번호)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95
부평1번가 빌딩 12층 1201-1호
032-612-3500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상경빌딩 3층 02-3481-1400

건국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2층 208호
02-455-8830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남로 17
덕영빌딩 3층 041-551-9090

단국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학생회관 3층 316호
041-565-9091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88
리더스빌딩 5층 042-822-8227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1-11 1층
062-233-8171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기린대로 470 3층
063-254-8844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21
삼희프라자 4층 031-917-7740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20 301호 031-702-3434

원주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80 3층
033-748-7740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9 2층 043-276-9400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1-6
051-809-8558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89 2층
053-421-8001

UNITED KINGDOM



영국 국가 소개

수도	런던(London)
화폐	파운드(GBP)
면적	243,610km ²
언어	영어
시차	한국보다 9시간이 늦어 한국의 오전 10시는 영국의 새벽 1시이며 썸머타임(3월 말~10월 말)에는 새벽 2시이다.
인종	• 백인 92.1% • 흑인 2% • 인도인 1.8% • 파키스탄인 1.3% • 혼혈 1.2% • 기타 1.6%
기후	• 한국에 비해 겨울에 습하지만 덜 춥고 여름에는 덜 더운 편으로 안개가 많고 비도 자주 내린다. • 봄과 가을은 8~12°C 정도이며 여름은 14~30°C 정도 인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 겨울은 -1~5°C로 그리 춥지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분다.
유학비자 종류	Short-term Study Visa 최대 11개월간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6개월 이하 / 6개월 ~11개월 이하로 구분) GSV(학생비자) 등록한 기간만큼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YMS(워킹홀리데이비자) 연간 1,000명을 모집한다.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2년 간 교육기관의 종류와 기간 상관 없이 자유롭게 학업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학생비자 불가(정규 대학과정 이상 수강자에 한해 가능) 워킹홀리데이비자(YMS) 시간 제한 없이 근무 가능
평균 연수비용 (1개월)	학비 150만원 + 숙식비 10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50만원 = 약 300만원 ※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 일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장점	• 영어의 종주국으로 정통 영어를 배울 수 있다. • 인접한 유럽 국가를 보다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다. • 영어권 국가 중 한국인 비율이 낮으며 지리적 특징으로 유럽 학생 비율이 높다. • 교육 커리큘럼의 수준이 높으며 중소 도시 선택의 폭이 넓다.
단점	날씨가 변덕스럽다.
추천 관광지	• 트라팔가 광장 • 웨스트민스터 사원 • 버킹엄 궁전 • 빅벤 • 대영 박물관 • 하이드 파크 • 세인트 폴 성당 • 타워 브릿지 등

영국 주요 도시 소개



Manchester

잉글랜드 그레이터맨체스터 특별도시주 맨체스터

박지성 선수가 몸 담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우리에게 친숙한 도시이다. 교통의 중심지로 잉글랜드 주요 도시를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고 주말을 이용해 스코틀랜드에도 쉽게 다녀올 수 있다. 문화, 예술, 스포츠를 고루 즐기기에 알맞은 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물가는 런던에 비해 저렴해 중소도시 중에서도 단조롭지 않은 곳을 찾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추천학교

- BSC
- EC English Language Centres
- EF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Torbay

잉글랜드 데본주 토베이

해변 휴양지이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페인턴, 토키, 브릭섬 등 세 도시가 토베이에 속해있다. 런던에서 약 3시간 거리로 전형적인 영국의 모습 이면서도 프랑스 남부지역 같은 느낌을 주며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다.

추천학교

LAL Language Centres



Bath

잉글랜드 에이번주 바스

영국에서 유일하게 자연 온천수가 발생하는 온천 도시로 2천년 전 로마인들이 지은 신전과 공중 목욕탕이 남아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아름다운 역사 도시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온화한 날씨를 자랑한다.

추천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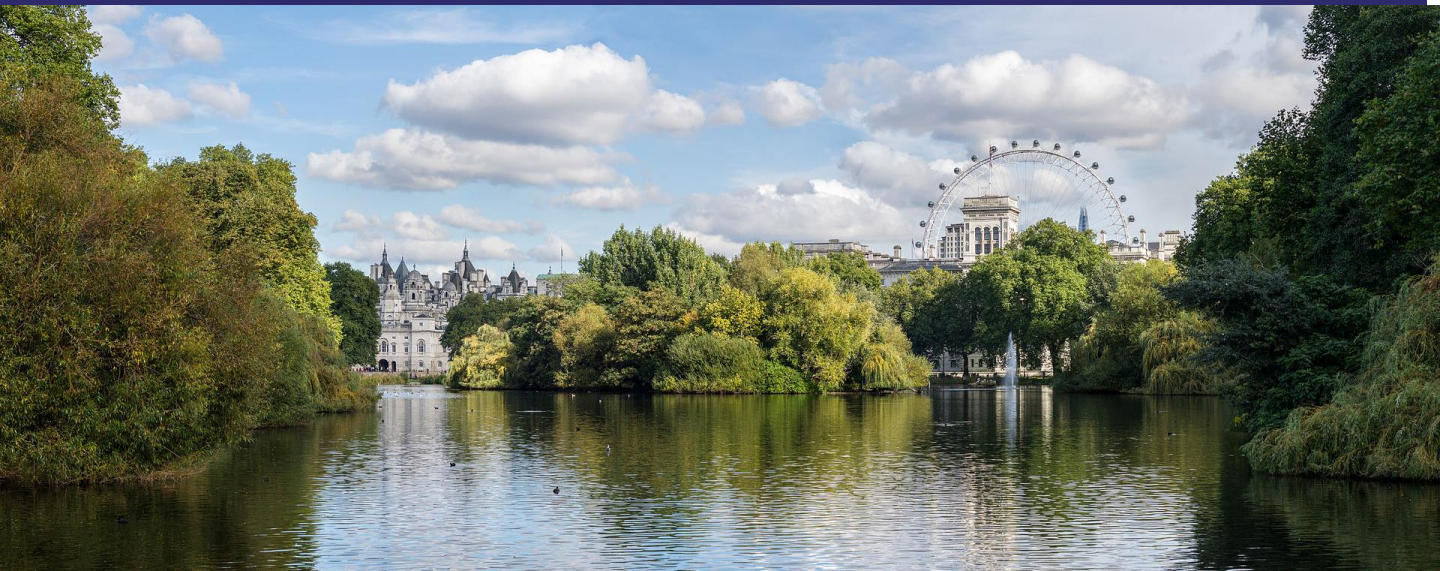
London

잉글랜드 런던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영국의 수도로서 수목이 울창하고 휴식공간이 많아 대도시임에도 삭막함이 덜한 편이다.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손꼽히며 전세계 금융, 관광, 교육, 쇼핑의 중심지로 국제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여러 영어학교가 경쟁하듯 위치해 학교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추천학교

- BSC
- EC Language Centres
- EF
- Eurocentres
- IH London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Kings Education
- LAL
- LSI
- OIES
- St Giles



Bournemouth

잉글랜드 도싯주 본머스

영국인들이 은퇴하고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인 본머스는 브라이튼과 함께 영국인들에게 사랑 받는 여름의 피서지, 겨울의 피한지로 대표적인 해안 휴양지이다. 바닷가에는 8km에 달하는 모래사장이 운치를 더한다.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한여름 최고 기온이 28도 정도로 무덥지 않은 편이다. 도시 규모에 비해 영어학교가 많아 자신에게 맞는 학교와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하다.

추천학교

- Anglo-Continental
- EF
- Eurocentres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Kings Education
- MLS



Oxford

잉글랜드 옥스포드셔주 옥스포드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부하고 있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대학 도시다. 영화 ‘해리포터’로도 잘 알려져 있는 옥스포드는 사실 생각보다 작은 지방 도시이다. 하지만 대학 특유의 활기가 가득해 지루하지 않은 도시로 전체 인구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추천학교

- BSC
- EC Language Centres
- EF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Kings Education
- OIES



Cambridge

잉글랜드 캠브리지셔주 캠브리지

캠브리지는 아름다운 중세시대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 도시로 8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University of Cambridge가 위치하고 있다. 런던에 비해 저렴하지만 타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생활비가 비싼 편이며 홈스테이의 퀄리티가 높고 우수한 영어학교가 다수 위치해 있다.

추천학교

- EC Language Centres
- EF
- Eurocentres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LSI



Bristol

잉글랜드 에이번주 브리스톨

유서 깊은 해양 도시로 흥겨운 관광명소가 즐비하고 요트 대회부터 열기구 쇼까지 1년 내내 이벤트와 축제가 가득하다. 젊은 층 인구가 많아 펍이나 극장, 레스토랑, 클럽 등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띤다. 지방이지만 물가는 다소 비싼 편이다. 햇볕이 좋고 겨울도 따뜻하지만 비가 자주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

추천학교

- EC Language Centres
- EF



Eastbourne

잉글랜드 이스트서식스주 이스트본

‘작은 브라이튼’이라고 불리는 이스트본은 다른 휴양지와 달리 카지노나 기타 유흥시설이 없어 안전하고 낭만적이며 공부하기 좋은 곳이다. 브라이튼이 젊음의 도시라면 이스트본은 노년층이 많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띤다. 정년퇴임 후 조용히 실버 라이프를 즐기는 노년층이 많아 사람들이 친절하고, 쉽게 말을 걸어준다.

추천학교

- EF
- ELC
- St G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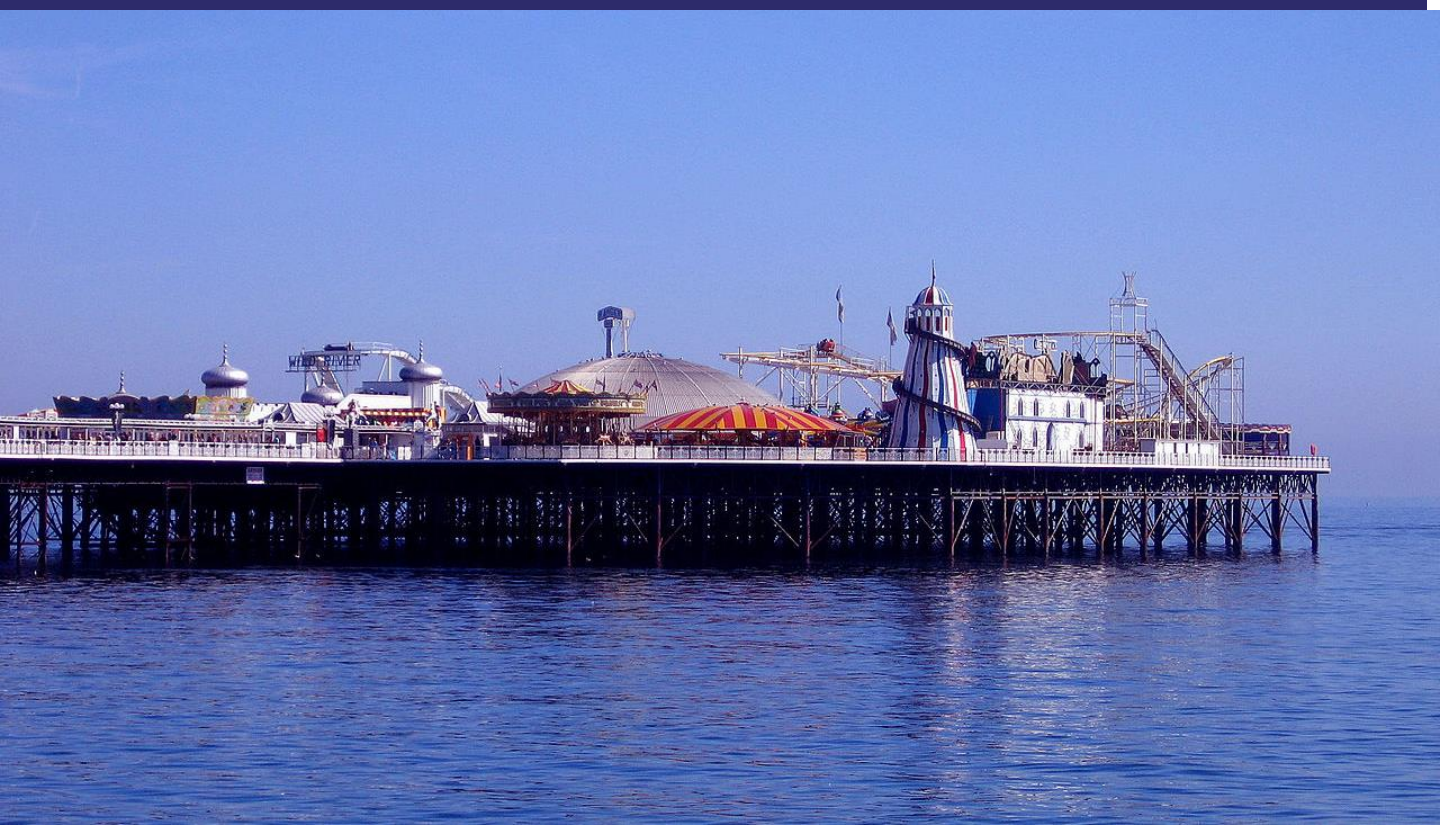
Brighton

잉글랜드 이스트서식스주 브라이튼

런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휴양 도시로 런던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일자리가 많아 영국 워홀러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다. 런던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한적한 곳에서 영국식 표준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브라이튼을 강력히 추천한다.

추천학교

- BSC
- EC Language Centres
- EF
- Eurocentres
- Kings Education
- LSI
- OIES
- St Giles



Torquay

잉글랜드 데본주 토키

아가사 크리스티의 고향으로 여왕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이다. 왕족들이 여름 휴양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도시이자 환경이 좋아 요양차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뜻한 기후, 깨끗한 금빛 해변, 열대 야자수 산책길 덕분에 영국 최고의 해안 도시라는 명성을 얻고 있으며 한국인이 매우 적어 어학연수를 위해서도 매력적인 곳이다.

추천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Edinburgh

스코틀랜드 로디언주 에딘버러

12세기 에딘버러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심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스코틀랜드의 문화적 일체감, 독립심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이다. 일반적인 영국의 기후처럼 예측 불가능한 날씨로 기온은 연중 온화한 편이지만 부슬비가 많이 내리고 흐린 날이 많다.

추천학교

- BSC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영국에서 영어를 배워야하는 진짜 이유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면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에 대해 구분을 하는 경험을 해보았을 터. 문법과 억양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곳도 다르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식 언어인 '영국식 영어'에 대해 알아봤다.

영어보다 더 보편적인 '영국식 영어'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식 영어'를 영어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영국식 영어'를 영국의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영국식 영어'는 미국식보다 훨씬 보편적이다.

실제로 미국식 영어 사용 인구가 전 세계 약 2억 4천명 정도인 것에 반해 영국식 영어 사용 인구는 약 10억 명에 달한다. 영국식 영어 사용자가 미국식 영어 사용자의 4배가 넘는 것. 이는 현재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칭하며 전 세계적인 정치, 군사,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무관하게 과거 영국이 세계의 1/4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정책적으로 영국식 영어를 교육했던 역사에 기인한다. 그 결과 영국 외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과 남아시아, 인도, 몰타, 호주, 뉴질랜드,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 홍콩 등지에서 미국식이 아닌 영국식 영어가 쓰이고 있다.

국제적 표준 영어인 ‘영국식 영어’

국내에서는 ‘영국식 영어’가 다소 어색하고 생소하지만, 막상 해외에 나가보면 부드럽게 굴러 연음으로 발음하는 미국식 영어보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는 영국식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UN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제올림픽위원회, 북대서양 조약 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 주요 단체들도 ‘영국식 영어’를 표준 영어로 채용하고 있다. ‘영국식 영어’가 미국식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영국 연방’이라는 특별한 제도 때문이다. 영국은 과거 영국제국 내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의 대부분과 영국 연방(British Commonwealth)을 조직했다. 영국 연방은 영국 본국과 대등한 위치의 주권국가들의 집합체이며 영국과는 각각 특수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현재까지 54개국이 영국연방에 가입돼 있으니 아직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말할 것도 없다.



중주국 본토 언어인 ‘영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는 시제나 동사, 전치사 사용 등 문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어휘도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식 영어에서는 ‘팀 (Team)’을 복수로 다루는데 반해 미국식 영어에서는 단수로 취급한다. 승강기는 영국식으로는 ‘Lift’이고 미국식으로는 ‘Elevator’다. 자동차 보닛은 영국식으로는 ‘Bonnet’이고 미국식으로는 ‘Hood’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두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다만 영국식 영어가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의 본토 영어이고 세계인이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영국은 식민지 정책으로 꾸준히 영어를 가르쳐 온 결과 영어 교습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와 전통을 쌓을 수 있었고 그만큼 수업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의 진수를 맛보고자 하는 사람, 더 다양한 세계인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영국식 영어’는 매력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다.



Cambridge & IELTS 필승 전략

공인 영어시험 점수는 취업 시 서류 심사 또는 해외 대학 입학에 위한 사전 조건으로 요구되는 영어 실력 확인의 척도다. TOEIC, TOEFL, TEPS, Speaking 등 다양한 공인 영어시험이 존재하는데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높아도 외국인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명확하게 평가하는 IELTS 시험이 새로운 영어 실력 확인의 척도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유럽과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Cambridge 시험은 한 번 받은 성적이 평생 인정되므로 국내에서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공인 영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준비과정’은 점차 어학연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Cambridge & IELTS

Cambridge 시험이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개발한 시험으로 PET부터 FCE, CAE, CPE 등 레벨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시험을 선택하여 치를 수 있다. IELTS의 네 가지 시험 영역(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외에 Use of English라는 항목이 하나 더 있으며 이는 두 명의 학생이 짝을 이루어 감독관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 그 안에서 실수를 체크하여 점수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IELTS 시험이란?

IELTS 시험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Academic Module과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General Training Module로 나뉜다. 공통적으로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의 네 가지 영역의 실력을 테스트한다. Listening은 일상 대화와 학술회의에서의 강연 등 전문적 내용의 지문이 함께 나오며 Speaking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원어민 시험관과의 1:1 인터뷰를 통해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답변을 외워서 대답하는 형식적인 시스템이 아닌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시험으로 ‘진짜’ 영어회화 실력을 확인 받을 수 있다. Reading의 경우 Academic Module은 잡지나 저널에서 발췌한 고급 지문인 반면 General Module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된다. 끝으로 Writing 시험은 두 모듈 모두 공통적으로 에세이 문제가 출제되며 도표 묘사와 편지 쓰기에서 시험의 성격이 나뉜다.

IELTS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시험으로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반면 Cambridge 시험은 보다 실용적이고 무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현지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Cambridge와 IELTS 모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영어의 종주국인 영국은 가장 오랜 기간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노하우를 축적해 온 나라이다. 특히 유럽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두 시험은 아시아보다 유럽 등지에서 더욱 인정 받고 있는데 유럽 학생들은 이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을 선택한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고급 영어로 인정 받는 영국식 영어를 공부하고 직접 영국식 공인 영어시험으로 실력을 인증 받기 위해서다.

- ✓ 두 세계적 공인 영어 시험의 출발지인 영국에서 직접 교육받는 기회
- ✓ 영국식 교육 스타일에 따른 학업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고 시험까지 실시
- ✓ 깊이 있는 영어 교육으로 같은 기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실력 향상 가능
- ✓ (지리적 조건으로) 유럽 학생 비율이 높고 한국인은 적은 편
- ✓ 저렴하고 손쉬운 유럽 여행 가능
- ✓ 영국 대부분의 영어학교에서 Cambridge와 IELTS 시험준비과정 제공
- ✓ 수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레벨을 공부하므로 시험준비과정 상시 운영

Cambridge	IELTS
연 3~4회 시험 실시	월 2~4회 시험 실시
유학, 해외취업, 외국계기업 취업 희망자 대상	유학 및 이민 희망자 대상
영역별 등급 표시(6개 등급)	총점과 영역별 점수 표시(9.0 만점)
평생 유효	2년간 유효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Use of English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Kings Education 영어플러스 과정

Kings Education 영어플러스 과정은 영어 실력 향상은 기본, 남들과 다른 경험과 전문화된 기술 등을 전수하는 특별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Kings Education 영어플러스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부터 디자인, 법률까지 자신의 전공과 관심사에 맞는 전문과정을 마스터하자.

English Plus Business and Finance

영어 플러스 비즈니스 & 금융 과정

해외 기업 또는 금융, 증권, 회계 등 비즈니스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이다. 경영학, 경제학 또는 회계학 전공 학생들이 생활 영어와 더불어 전문 비즈니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취업 스펙을 가질 수 있다.

제공센터	• 런던(London) • 본머스(Bournemouth)
과정기간	2주 이상
수업시간	주 28교시(일반영어 20교시 + 비즈니스 & 재무 8교시 + 개별 프로젝트 6시간)
입학조건	중하급(Lower Intermediate) 이상

영어실력 향상

독해, 작문, 구술, 문법 등 영어의 전 영역을 고루 섭렵하며 비즈니스와 금융 관련 용어 및 보고서 작성법, 영어 PPT 구성방법과 발표 스킬 등을 배울 수 있다.

비즈니스 전문영어

매주 8교시의 비즈니스 수업을 통해 비즈니스 매너와 그룹 토론, 사례 연구 등을 다룬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케이스 스터디가 주를 이루므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런던의 기업 방문

매달 격주로 런던의 주요 기업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실제 업무 현장을 둘러 보고 런던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으며 실무에 사용되는 용어를 배울 수 있다. 해당 기업의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기업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젝트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으로 이력서의 한 부분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다.



English Plus Art and Design

영어 플러스 아트&디자인 과정

영어를 공부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 또는 단순히 스케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추천하는 과정이다. 수업 이외에 매주 최소 6시간은 아트 스튜디오에서 개인 과제에 전념하게 된다.

제공센터	• 런던(London) • 옥스포드(Oxford)
과정기간	2주 이상
수업시간	주 28교시(일반영어 20교시 + 아트 & 디자인 8교시 + 개별 프로젝트 6시간)
입학조건	초급(Elementary) 이상

영어실력 향상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단어, 발음 등 영어의 전 영역을 고루고루 공부할 수 있다.

아트 & 디자인 기술 습득

매주 8교시의 아트 & 디자인 수업을 통해 드로잉, 페인팅, 패션/텍스타일, 3D 디자인 등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다.

Kings 아트 스튜디오 사용

옥스포드 성 요셉 캠퍼스와 런던의 주 교육관에 위치해 있는 아트 스튜디오는 밝고 넓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유화와 데생, 모형 제작 수업에 필요한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 아트 스튜디오에서 전문 아트 교사의 수업을 듣고 자유 시간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하기도 한다.

전통과 문화 체험은 기본, 비용절감까지!

영국 중소도시 실속 어학연수

나라마다 수도를 포함한 대도시에는 최첨단, 최신식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람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마련. 반면 중소도시에는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매력적인 중소도시를 소개한다.



Brighton

영국 왕족의 휴양지 브라이튼

예로부터 브라이튼은 원래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19세기 초 국왕이 별궁을 지은 이후 휴양지로 발전했다고 한다. 런던 빅토리아 역에서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히드로 공항에서는 차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런던 및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런던에 못지 않을 만큼 다양한 영어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대학이 위치해 젊은 학생들이 많고, 런던과 근거리에 위치해 방언의 색을 거의 띠지 않아 최고의 어학연수지로 손색이 없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만 큰 추위나 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유지하며, 해변에는 산책로나 수족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휴식처가 된다. 철마다 다양한 행사를 열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잡는데 프린지 축제(5월), 게이 퍼레이드(8월), 좀비 퍼레이드(10월), 불꽃축제(11월), 등불 축제(12월) 등 볼거리 또한 가득한 도시이다.

공부는 여기에서!

Oxford International English Schools

OIES 브라이튼 센터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여 창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해변 등 훌륭한 경관을 자랑한다. 영어 및 휴양을 즐기기 위해 브라이튼을 선택한 유럽 학생이 많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며, 휴양도시 특유의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학교에도 반영되어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이다. 휴양지에서의 여유로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동시에 시내 중심의 편리함도 함께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따뜻한 날씨를 선호하고 바다를 좋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또 있을까.

Bournemouth

정원 속에 만들어진 도시 본머스

본머스는 런던에서 기차로 약 1시간 반 거리의 남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영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중 하나로 10km가 넘는 황금빛 모래사장, 아름다운 공원, 깨끗한 공기와 충분한 일조량 때문에 많은 영국인들이 은퇴한 후 본머스로 이주해 노후를 보내고 있다. 본머스는 이렇듯 이름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저렴하여 영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데 생활비가 런던에 비해 20~30% 저렴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므로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공부는 여기에서!

Anglo-Continental

Anglo-Continental은 런던 다음으로 영어학교가 많은 본머스에 생긴 최초의 영어학교이다. 60년 이상의 풍부한 영어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과과정+선택수업+무료 특별활동을 제공하는 알짜 학교이다. 공식 TOEIC, TOEFL 시험센터로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건물에 잔디 공원, 교내 카페테리아와 대형 시청각실, 이탈리아 주방장이 있는 식당 등 최고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Torbay

영국의 리베라 토베이

대서양 연안의 작은 항구 도시이자 사랑 받는 해변 휴양지인 토베이는 아름답고 신나는 관광 도시 페인턴(Paignton)과 낚시로 유명한 어촌 마을 브릭섬(Brixham), 우아한 풍경의 토베이 메인 도시 토키(Torquay)로 이루어져있다. 절벽, 긴 모래사장, 야자수 등이 어우러진 장엄한 해안 절경과 해안가에 위치한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지중해를 느끼게 한다.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매력적인 토베이는 런던에서 기차나 차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브리스톨(Bristol)이나 엑시터(Exeter), 플리머스(Plymouth) 등의 공항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공부는 여기에서!

LAL Language Centres

1981년 개교한 LAL 토베이 센터는 페인턴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어 조용하면서도 해안가라는 지역적 특성상 연중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전체 규모가 750명으로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가 큰 편이다. 다른 영국의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로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영어과정의 학급당 최대 학생수는 12명이며, 프리미엄 과정은 최대 6명의 소그룹으로 운영되므로 보다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Anglo-Continental

위치 본머스

학교소개 본머스 최초의 영어학교로 풍부한 교육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과과정, 선택수업, 무료 특별활동을 제공하는 알짜 학교이다. 특히 학생 레스토랑과 영화를 볼 수 있는 대강당은 학교 생활에 활기를 불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영어공부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인 대학진학준비과정과 장기영어과정이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래서 추천!

- ✓ 경제적인 학비와 물가의 실속파 영어학교
- ✓ 최대 1,2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 최상의 학습시설 (College 수준) 보유



Bell International

위치	• 런던 • 캠브리지
학교소개	편안한 환경의 교실, 다양한 참고서적을 구비한 도서관, 멀티미디어 센터, 컴퓨터실 등은 영국 최고의 시설이라는 찬사를 듣는다. 유럽과 아랍의 상류층들이 많이 와서 '귀족학교'라고 불리기도 하다. 해마다 BELL의 소문을 들은 전세계 120여개국 학생들이 몰려드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영어학교다.

이래서 추천!

- ✓ 넓은 정원과 대규모 도서관 등 뛰어난 학생시설
- ✓ 풋볼, 테니스, 발리볼, 농구, 당구, 에어로빅, 스쿼시, 골프, 승마 등의 각종 스포츠 및 특별활동 제공
- ✓ 소규모 그룹 수업을 지향



British Study Centres

위치	• 런던 (센트럴, 햄스테드) • 옥스포드 • 브라이튼 • 맨체스터 • 요크 • 에딘버러
학교소개	영국 내에서 가장 많은 센터를 보유한 단일학교로 2010, 2012년 ST Star Awards에서 유럽 최고의 영어학교상을 수상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래서 추천!

- ✓ 매주 치르는 시험과 정기적인 1:1 튜터링으로 철저하게 학업관리
- ✓ 영어와 취미를 접목한 영어+요리/서핑 과정과 5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영어과정까지 다양하게 개설



EC Language Centres

위치

- 런던
- 캠브리지
- 브라이튼
- 브리스톨
- 옥스포드
- 맨체스터

학교소개

ISO 9001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교육시스템 및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ARELS와 영국 정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14명으로 제한하여 소규모의 집중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입학 시험을 통해 같은 수준의 학생들로 반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 영국, 몰타 센터 이동이 가능한 2개국 연계과정 제공
- ✓ 유학네트 학생들만을 위한 '프리미어 영어과정(일반영어+일대일영어) 제공



EF (Education First)

위치

- 런던
- 캠브리지
- 브라이튼
- 옥스포드
- 맨체스터
- 브리스톨
- 본머스
- 이스트본

학교소개

초급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18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4~6주마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레벨을 업그레йд 할 때까지 무료수업을 제공하여 EF 프로그램만의 질적인 보장을 약속한다.

이래서 추천!

- ✓ 2018년 평창올림픽 파트너(다섯번째 올림픽 파트너십)
- ✓ 수업+숙소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
- ✓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학습시스템 EF Efekta를 통해 빠른 영어 실력 향상



English Language Centre

위치 • 브라이튼
 • 이스트본

학교소개 1962년 자선교육재단에 의해 설립된 ELC는 영리 추구가 아닌 오직 최고의 영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영국 최고의 명문 사립 영어학교이다. 교사들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4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학업한다.

이래서 추천!

- ✓ 비영리 교육재단에서 운영하여 학교의 모든 수익을 학생을 위해 재투자
- ✓ 생활비가 저렴한 아름다운 해변도시인 브라이튼 & 이스트본에 위치



Eurocent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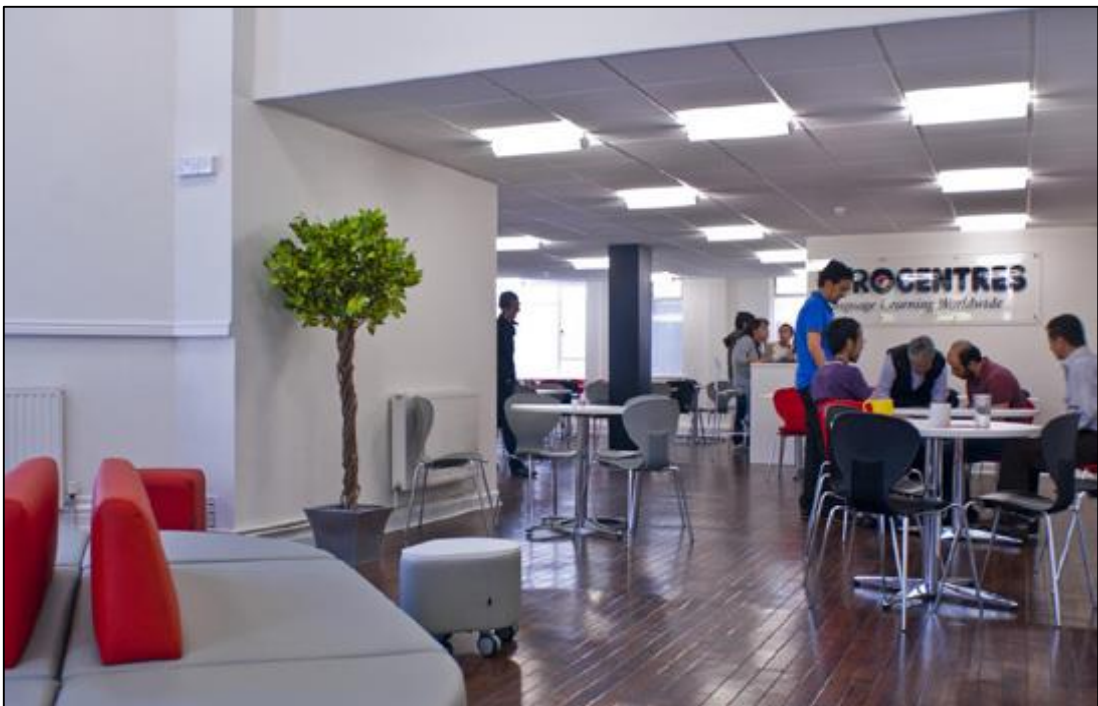
- 위치
- 런던 (센트럴, 엘섬)
 - 캠브리지
 - 브라이튼
 - 본머스

학교소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어학교육 재단으로 특히 유럽에 널리 알려져 유럽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영국의 명문 영어교육기관 협회인 EAQUALS의 멤버이기도 하다. 90여 개국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국제적 교육 환경을 자랑하며 영어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 교육을 제공한다.

이래서 추천!

- ✓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체계적 교육 시스템인 Eurocentres Success System
- ✓ 스포츠 및 문화 수업을 통한 영어능력 활용 기회 제공



IH London

위치 런던

학교소개 최적의 위치, 우수한 교사진,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 런던에서의 직장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 최상의 조건을 구비한 명문학교이다. 또한 첨단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수업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경험과 빠른 영어실력 향상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 런던 최대 규모의 학교 중 하나
- ✓ 영어교재 베스트 셀러인 Headway, Cutting Edge 저자가 교사로 재직



INTO

위치

- 벨파스트
- 첼트넘
- 엑시터
- 글래스고
- 런던
- 맨체스터
- 뉴카슬
- 노르위치
- 스텔링

학교소개

INTO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학부설 영어학교로 우수한 교육 품질의 영국 대학진학 예비과정 및 영어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의 명문대학들에서 최상의 교육과 교육시설, 문화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빠르게 원하는 학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대학에서 직접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 등을 관리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이래서 추천!

- ✓ 대학 캠퍼스에서 현지 학생과 함께 거주하고 학업하며 다양한 활동 통해 현지 학생 및 국제 학생들과 융합
- ✓ 다양한 공연 및 현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생 동아리(Student Union) 활동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위치
- 런던(코벤트 가든, 레스터 스퀘어)
 - 본머스
 - 옥스포드
 - 캠브리지
 - 맨체스터
 - 에딘버러
 - 바스
 - 토키
 - 리버풀

학교소개

국가 별 교육기관에 의해 공인된 유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 K+ 학습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교습 방법을 자랑한다. 또한 일반영어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부터 비즈니스영어 및 해외 인턴십과 정까지 폭넓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 높은 공인 자격증 취득율 & 시험합격률
- ✓ 세계 여러 나라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Kings Education

위치

- 런던
- 본머스
- 옥스포드
- 브라이튼

학교소개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영어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강기간에 상관없이 집중적이고 세심한 학생 케어를 제공하며 최적의 학습환경에서 수준 높은 영어과정을 제공한다.

이래서 추천!

- ✓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영어 플러스 과정 제공
- ✓ 영어과정 뿐 아니라 A-level, 학비예비과정, 인턴십 등 다양한 과정 제공



LAL Language Centres

위치	• 런던 • 토베이
학교소개	영국뿐 아니라 미국, 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영어학교이다. 균형 잡힌 국적비율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며, 소규모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소규모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 CELTA/DELTA 공식 지정 센터로 영어교사가 되려는 영국인들이 공부하는 장소
- ✓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기숙사 이용 가능



LSI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위치	• 런던(센트럴, 햄스테드, 일링) • 캠브리지 • 브라이튼
학교소개	대부분의 센터가 중소규모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족적이고 친근한 학생 관리를 통해 영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한국 학생수가 특히 적고 다른 영어학교에 비해 유럽 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이래서 추천!

- ✓ 영국문화원, English UK 등으로부터 전문 교육기관 인증
-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



OIES (Oxford International English Schools)

위치 • 런던 그리니치
 • 브라이튼
 • 옥스포드

학교소개 저렴한 비용과 높은 학업 성취도, 친근한 학교 분위기, 수준 높은 교사진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일반영어과정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 비즈니스영어, 영어교사양상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선택이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 학생 상담 교직원이 상주하여 확실한 학생 관리
- ✓ 주기적인 레벨 테스트와 피드백으로 학생들 스스로 실력 향상 확인 가능
-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인증, 국제 어학원 협회(ALTO), 국제 청소년 여행 단체 연맹(FIYTO) 회원교



St. Giles International

- 위치
- 런던 (센트럴, 하이게이트)
 - 캠브리지
 - 브라이튼
 - 이스트본

학교소개

1955년 설립되어 오랜 전통과 명성을 보유한 명문영어학교로 센터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다양한 흥미거리가 도처에서 제공된다. 특히 학생 개개인에 제공하는 친절한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학생서비스 그리고 학비가 보장되는 인증된 교육기관이다.

이래서 추천!

- ✓ 학급당 최대 5명의 학생으로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한 플래티넘 영어과정을 운영
- ✓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학비로 학업이 가능



What do you mean?

그 단어, 도대체 무슨 뜻이니?

유학이나 어학연수 생활을 하다 보면 현지인과 대화할 기회가 자주 생기곤 한다. 분명 어느 정도 영어를 마스터했다 생각했는데, 실제 대화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단어들로 이야기해 당황스러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는 유행어처럼 통용되는 슬랭 때문인 경우가 많다. 현재 각 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슬랭들을 알아두면 현지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터. 각 나라, 그중에서도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의 대표 슬랭들을 모아봤다.

슬랭의 천국, 미국에서 맛보는 다양한 단어들

▶ What's up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한국어로는 ‘뭐해?’ 정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안녕’, ‘별일 없니?’, ‘반가워’ 등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 Hey, what's up? / Not much man.

▶ Chill (out)

Chill out은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한다. out을 빼고 Chill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침착해’라고 말할 때 ‘Chill!’ 또는 ‘Chill out’이라고 표현하기도. : We are just chilling (out). Do you want to come around?

▶ Dunno

Dunno는 'I don't know'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미국식 영어 표현 중에는 최대한 짧게 또는 빠르게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슬랭이 많은데, Dunno 역시 그 중 하나. a little bit을 a bit이라고 하는 등 문자를 보낼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 Dunno, she's always late!

▶ Be sick

흔히 Sick하면 감기에 걸리는 등 몸이 아프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미국 영어 슬랭 표현에서 Sick은 '미쳤다', '대박', '최고다' 등의 표현으로 쓰여진다.

: You missed a sick party last night!

▶ Busted

Busted는 한국어로 '잡혔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다가 또는 들켜서는 안될 것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잡힌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게 잡히거나 부모님에게 들켰다 등의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 한국어로 “나 망했어” 역시 “I am so busted.”로 표현할 수 있다.

: Did you hear that Sam got dusted speeding the other day?



슬랭도 격식 있게!

영국의 색다른 슬랭들

▶ Not my cup of tea

한국어로 표현하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무언가를 정중히 거절할 때 ‘No’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신사의 나라 영국, 티를 즐기는 영국인 이미지에 어울리는 슬랭이다.

: I am afraid that it is not my cup of tea.

▶ INNIT?

영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지겹게 들을 단어 중 하나가 바로 INNIT일 것. 이는 영어로 무언가를 반문할 때 쓰는 ‘Isn't it?’의 줄임말이다. 최근엔 이 의미가 확대되어 ‘aren't you?’, ‘aren't I?’ 등 모든 문장 끝에 반문을 하는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 Yeah, it's one of them, INNIT mate?

▶ Fit

‘예쁘다’, ‘잘생겼다’, ‘매력적인’, ‘섹시한’ 등 훈남훈녀의 느낌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미국식으로 하면 ‘hot’이란 표현과 유사한 단어.

: He looks fit.

▶ Bloody

영국에서 매우 흔한 슬랭 중 하나이다. 영화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놀라움을 표현하거나, 무언가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 Bloody awful!

▶ I'm gutted / I feel gutted

원래 to gut 동사의 의미는 ‘생선의 내장을 뽑아내다’라는 뜻이다. 몸 속에 공허함 밖에 안 남는다는 의미의 ‘완전 실망했어’, ‘처참한 기분이다’, ‘탈탈 털린 기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슬랭이다.

: Didn't you feel gutted when you failed your driving test?

생활 깊숙이 파고든 생활밀착형

캐나다 슬랭들

▶ Eh?

미국식 영어에서는 흔히 ‘Huh’라고 발음한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Don't you agree?’ 정도로 해석된다.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히 캐나다 북부 지방의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 This stake is really good eh?

▶ Double-double

Double-double은 커피에 들어가는 두 개의 크림과 두 개의 설탕을 뜻한다. 캐나다의 유명한 커피 전문점인 Tim Hortons에서 광고 문구로 이용하면서 큰 유행을 탄 단어이다.

: I stayed up till 3am at the Welcome Home Party; I desperately need a double-double.

▶ Pop

Pop은 한국에서 탄산음료, 미국에서는 Soda로 통한다. 캐나다에서 Soda라고 예기하면 음료 대신 탄산수를 마시게 될지도 모르니 주의하시길.

: I could use a cool refreshing pop right now - Sprite, Coke or Pepsi - anything that will rev me up during the breaks.

▶ Knapsack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가방은 영어로는 쉽게 Back Pack이라고 쓰인다. 캐나다 슬랭으로는 Knapsack 또는 Book bag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Knapsack은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라서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 Did you check out the TED gift Bag? It is a knapsack that glows in the dark and has hundred pockets.

영국,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유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과 느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학네트 공식 특파원, 글로벌리포터가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숙소 전격 비교 '홈스테이 vs 플랏'

영국으로 연수 또는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숙소인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장 보편적인 숙소인 '홈스테이'와 '플랏 (Plot)'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홈스테이의 장점은 집에서든 끊임없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가 저를 케어해 준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또한 진정한 영국 생활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온 케이스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홈스테이 집에 살면서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했어요. 홈맘이랑 대디랑 주말에 와인이나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인생 얘기, 결혼 얘기 등 많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었어요.



홈스테이의 단점은, 아무래도 주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제가 5개월 넘게 있으면서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이 김치인데, 김치는 정말 보관하기도 힘들고 홈스테이 가족들이 냄새가 강한 음식을 싫어하더라고요. 주방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말 간단한 음식만 해먹을 수 있고 개인 음식은 보관이 힘들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반면에 플랏(Plot)은 한국음식을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특히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고향의 맛이 생각날 때 바로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담없이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단점으로는, 플랏에서 산다는 것은 한국에서 자취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지낼 때보다 살짝 게을러 지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홈스테이에서 지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좋은 가족들을 만나면 그냥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된 것 같이 생활해 볼 수 있으니까요!

브라이트 이선민 리포터

영국의 카드 문화

영국은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드를 정말 많이 주고받아요. 제가 처음 영국에 도착했을 때 홈스테이 호스트한테 카드를 받았었는데요. 저는 처음 와서 특별히 환영의 의미로 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영국은 사소한 일에도 카드를 많이 주고 받더라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영국에는 카드만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이 엄청 많아요. 어디에서나 카드를 쉽게 살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쉽게 카드 매장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매장에 가보면 생일, 크리스마스, 새해, 결혼, 약혼 등 이벤트 별로 세분화 되어있고, 엄마, 아빠, 딸, 아들, 친구, 연인, 동료 심지어 이웃에게 보내는 카드로 나뉘져 있어요.

저는 친구들 또는 가족에게 카드를 쓸 때 하고싶은 말을 길게 쓰는 편인데, 영국에서는 딱 하고 싶은 말만 간단히 적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짧게 쓰면 성의가 없어 보일까 걱정했었는데, 영국의 카드 문화 자체가 간단하고 짧게 써서 주는 문화인 것 같아서 저도 부담없이 카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국에 오신다면 홈스테이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부담없이 카드를 전해 보세요!

브라이트튼 장현아 리포터



영국의 'TEA TIME'

영국인들은 차(Tea)를 엄청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만큼 차를 엄청 자주 마시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6~7회 정도의 티 타임을 가진다고 해요. 티 타임의 종류로는 아침 6시에 마시는 얼리 모닝 티, 아침 7시 즈음에 식사와 함께 즐기는 브랙퍼스트 티, 오전 11시에 가볍게 마시는 일레븐즈 티, 점심 식사와 함께 마시는 미드 티 그리고 오후 3~4시 경에 즐기는 애프터눈 티가 있어요. 정말 다양하지요?

제가 머물고 있는 홈스테이의 아주머니께서도 티를 정말 좋아하셔서 엄청 많은 양의 티를 보유하고 계세요. 아주머니께서 취향에 따라 마시고 싶을 때 마셔도 된다고 하셔서 저도 식사 후에 룸메이트와 함께 자주 티를 마시는 편입니다. 티 타임 때마다 차만 마시면 아쉽지요! 그래서 보통 티 타임을 가질 때에는 항상 스콘, 케이크, 머핀 등과 같은 디저트를 곁들여 먹는답니다. 여러분들도 영국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영국의 티 타임을 경험해보세요.

브라이트 김민경 리포터





한 ^[수]秀 위의 안심유학

유학네트의 안심유학 서비스,
어떤 점에서 타 업체보다 한 수 위일까요?



유학네트에는 학비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한 직접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외 송금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학네트는 평균 근속연수 8년 이상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유학플래너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학네트는 After Care Service(ACS)를 통해 국내 유학플래너와
현지 한국인 담당자가 출국 회원의 현지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유학네트는 국내 최대 카드사인 하나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업계 최초로
어학연수 학비 12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유학회사입니다.



유학네트는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INNO Biz 업체로
정부기관이 인정한 기술혁신형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수 위!

유학네트

◆ 55만 유학생이 선택한 스마텔
당신의 선택도 스마텔 입니다.

◆
미국, 캐나다 갈땐 역시 **스마텔!**

스마텔 유심은 미국, 캐나다 현지 통신사의
유심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BUT

요금은 현지보다 더 저렴합니다.

스마텔은 IAE유학네트가 인증한
최고의 유학생 휴대폰 전문기업입니다.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스마텔미국유심 @스마텔캐나다유심



1566-4200

 **smartel** www.smartel.co.kr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길 26 스마텔빌딩

근무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근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Kings English opens up your world

“As I wanted to make considerable improvement in my English, I decided to take the full-time course so that I could intake the most input. I do have specific future plans for my career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For this reason, my English skills migh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my teaching and English class. Furthermore, English skills will be required for my master's degree in the near future.

In my opinion, my English has improved remarkably.”

Do Yeon Kwon

Studying the Diploma of English at Kings London



TOP STUDY AND LIFESTYLE
LOCATIONS IN THE
UK AND USA

INNOVATIVE, OUTCOME-
DRIVEN COURSES

Focusing on:

- Fluency and experience
- Professional success
- Exam success
- University success

EXCELLENT TEACHING
AND FACILITIES

- Modern, well-equipped classrooms
- Small class sizes
- Experienced teachers
- Dynamic learning methods

Visit
kingseducation.com
to find out more